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5월 15일(주일) 제1099호



일본 지진피해 지역 구호활동.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일본 지진피해 지역 구호팀 파견 ... NGO 더멋진세상, 대학청년부 등 22명
5월 11일~17일까지 구마모토 마시키마치, 미나미아소 지역에서 구호활동

온누리교회가 지난 달 14일과 16일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일본 규슈 구마모토 마시키마치 지역에 구호팀을 파견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총 22명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선봉을 맡고, 2000선교 본부(아마구치 키요타카 목사), 일본어예배부(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이재석 선교사, 윤말숙 집사), 대학청년부(정한호 전도사, 청년 이승혁, 문우주, 육인경, 안우용, 김도형, 김해림, 송귀석, 한지웅,

이가일, 서순신, 한승주)가 동행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도현 선교사, 김인경 선교사, 이형석 선교사, 서우숙 선교사, 이노우에 마키 목사(오이타 사이키복음그리스도교회)가 합류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지난 11일 후쿠오카 공항을 거쳐 구마모토 지역으로 들어갔다. 구마모토시에 위치한 뱀엘교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17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구호작업에 들어갔다. 지진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마시키마치

지역과 미나미아소 지역에서 구호작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인 마시키마치 지역에서는 잔해 청소와 자원봉사자 식사대접을,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미나미아소 지역에서는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현에서만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5,271호가 파손됐다. 파난자만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까

지진도 1 이상 여진이 1천회 이상 감지되고 있다.

규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가 된 하베스트교회 나카무라 목사는 “지금은 구호팀과 자원봉사자가 기껏해야 수십 명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누리교회 구호팀 합류가 큰 힘이 된다”면서 “효과적인 구호작업을 위해서 계속 봉사자들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 막내인 서순신 형제(24세)는 “교수님께 말씀드려 시험도 미루고 왔다”면서 “고난에 처한 일본을 성심성의껏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미래를 잇는 꿈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18~19일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러브소나타 개막

이번 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의 막이 오른다. 18일과 19일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24번째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진다. 18일 오후에는 그란비아 호텔에서 한일국제교류포럼(리더 심포럼)이 열리고, 저녁 7시에는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가스펠나이트 오카야마 집회가 열린다. 니시무라 다카노리 목사가 설교하고, 힙합

아티스트 마미야, 오카야마가스펠&키즈 가스펠팀, 빅토리랜드,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19일 오전에는 오카야마 심포니홀 이벤트홀에서 교회세미나가 열린다. 이기복 교수가 ‘가정과 자녀양육’, 박종길 목사가 ‘교회론과 목회철학’, 김하중 장로가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같은 날 저

녁에는 오카야마 심포니홀 대홀에서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가 개최된다.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미래를 잇는 꿈’을 주제로 오카야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카야마 현지는 코앞으로 다가온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협력교회가 모였으며, 초대장 신청도 3천7백 장을 넘겼다. 집회에 대한 기대

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를 섬기기 위해 무려 한국인 봉사자 455명이 참가한다. 일반 참가자 183명, CGNTV 운영위원회 이웃리치팀 30명, 서빙고 3부 찬양 사역팀 66명, 복지재단 20명, CEO포럼 및 스콜팀 52명, 스테프 및 출연자 104명이다.

가타야마 유미코 성도(사쿠라가오카 그리스도교회)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사키 히토하루 목사(오노미코에교회)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느낄 수 있게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삼범 목사와 서찬교 장로의 아름다운 동역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다섯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눔선교교회'다. 서찬교 장로(성북공동체)가 2013년 12월 8일부터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어 섬기고 있는 교회다. 지난 9일 그곳에 다녀왔다.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어르신이 나눔선교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성도가 부리나케 달려가 어르신을 부축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오이도 광장에서 모여요. 저랑 같이 가요.”

그 성도는 나눔선교교회에서 오이도 광장으로 가는 그 짧은 길에도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런데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는 성도가 낮익다. 그는 2013년 12월 8일부터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눔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북공동체 서찬교 장로다. 반갑게 인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빠 보였다. 오늘 이곳에서 ‘오이도 경로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오이도 광장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와 있었다. 오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모인 것 같았다. 하루 종일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고, 맛있는 음식이 지천이었다. 나눔선교교회 최삼범 담임목사와 서찬교 장로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오이도 나눔선교교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 그렇다고 행사를 자주 개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다. 나눔선교교회는 성도가 20여 명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교회이다.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행사를 어떻게 개최할 수 있었을까. 최삼범 목사와 서찬교 장로의 아름다운 동역이 그 원동력이다.

“7년 된 성도는 떠나라”

2013년 12월 8일, 장로 7명의 은퇴식이 있었다. 장로는퇴를 앞둔 서찬교 장로의 감회가 남달랐다. 서 장로는 장로는퇴와 동시에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시작은 새벽예배였다.

서 장로가 성북구청장으로 공직생활을 하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회에 나갔다. 지역사회 복음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지역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렸다. 성북구 일대 300개가 넘는 교회를 일일이 찾아 다녔다. 서 장로는 지역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사정이 어려운 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사와 사모 단 둘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 지역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복음화 된다

오이도 나눔선교교회를 돕자 ... 예배, 중보기도, TV후원



나눔센터 앞에서 최삼범 목사(좌)와 서찬교 장로(우).

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마음이 아팠다. 8년 동안의 성북구청장 임기가 끝나고, 19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서 장로가 2013년 2월 은퇴를 선언하고 오이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유년시절을 보냈던 바다가 그리웠기 때문이다. 서 장로가 오이도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새벽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는 것이었다. 당시 오이도에는 교회가 3개 있었다. 서 장로가 첫 번째 들린 교회는 50명, 두 번째로 들린 교회는 20명이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세 번째 들린 교회가 바로 나눔선교교회다. 3명이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눔선교교회 문을 열었는데 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바로 여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예배를 드린 뒤 3명 중 2명은 목사님 가족이었고, 한 명은 80세가 넘는 권사였다. 서 장로는 평일에는 나눔선교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당시 오이도는 복음의 황무지였다. 나눔선교교회 소속 성도가 10명도 안됐고, 교회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서 장로가 오이도에 오자마자 두 번째로 들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불이 꺼졌다. 인구 8천명이 넘게 살고 있는 오이도에 교회가 단 두 곳 밖에 남지 않았었다. 긴박감 때문이었는지 서 장로는 나눔선교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싶었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교회에 국내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로는퇴를 앞둔 서찬교 장로가 이재훈 담임 목사에게 국내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고, 2013년 12월 8일 장로는퇴와 동시에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피를 두르고 예배안내부터 시작했어요. 교인이 10명인 교회에서 무슨 안내나, 장로가 안내도 하나며 놀리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나눔선교교회에서 서 장로는 성실한 일꾼으

로 통한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 나이가 칠십이 넘었지만 어느 청년보다 힘이 넘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다 열매는 더 재미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역하는 맛이 난다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왜 ‘7년 된 성도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키운 신앙과 사역 노하우를 지역교회와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지역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복음화 되기 때문입니다.”

나눔선교교회와 최삼범 목사

“목사님 제가 나눔선교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예배를 드리던 한 성도가 최삼범 목사에게 건넨 말이다. 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온누리교회 장로였다. 그동안 나눔선교교회를 섬기겠다고 한 성도들이 종종 있었지만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 때문에 최삼범 목사는 서 장로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장로 한 명 생겼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서 장로는 달랐다. 성도가 몇 없는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안내를 하더니, 목사보다 교회에 더 오래 머물렀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했다. 서 장로와 머리를 맞대면 어려운 고민도 술술 풀렸다. 20년 동안 묵히면서 이렇게 즐거운 적은 처음이었다. 서 장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했다.

최 목사는 20년 전 폐결핵 3기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오이도에 들어왔다. 네 살배기 딸과 생이별을 했다. 교회개척을 하면서 진 빛도 많았다. 일을 해서 갖고 싶어도 망가진 몸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죽

을 날만 기다렸다. 그즈음 IMF가 터지면서 오이도에 포장마차촌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려 갈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지 3일 만에 구청의 단속으로 포장마차가 허물어졌다. 눈앞이 캄캄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때 깨달았다. “목사는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해야 한다.”

최 목사는 컨테이너에 ‘빈민선교교회’를 열고 목회를 시작했다. 10여 년을 컨테이너에서 목회했다. 2000년 초반이 되자 오이도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와 동시에 어르신들 인구가 늘었다. 방세가 저렴한 영향이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버림받듯이 오이도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최 목사는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2001년 어르신들과 여행을 다녀오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르신 2명이 사고현장에서 돌아가셨다.

“그 순간 목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나눔선교교회를 열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가족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1년 동안은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일도 수 차례였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최 목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섬겼다. 교회 옆 공터에 ‘나눔쉼터’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들께 국수를 삶아 대접했다. 시간 날 때 마다 노래자랑,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음을 전했다. 재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해가며 충당했다. 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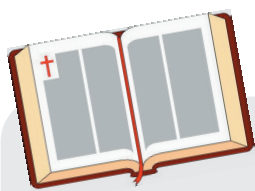
최 목사가 나눔선교교회를 열 때만 해도 오이도에 교회 7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 두 곳뿐이다. 나눔선교교회에 성도가 많아서, 헌금이 많아서 나눔선교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든든한 동역자 서찬교 장로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어르신들이 있는 이상 목회를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최삼범 목사와 서찬교 장로에게 힘을 보탤으면 좋겠다.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눔선교교회와 최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자. 매주 금요일 점심 무료급식을 도와주는 것도 좋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서 2층에 있는 나눔선교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쉼터’에 TV를 설치해주면 정말 좋겠다.

문의 : 최삼범 목사(나눔선교교회)

010-4274-392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정통과 전통’입니다. 정통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전통은 오랜 시간 전속되어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개는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옳지 않은 가치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공존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됩니다. 계속 전속시켜야 될 옳은 전통까지도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라고 하는 경우 갈등이 생깁니다. 변화지상주의는 옛 것은 모두 잘못되었고, 전통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화만을 추구하려다 그 사회와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전통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주의’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정통성 있는, 정통성을 상실한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오셨을 때 부딪힌 많은 도전들은 정통을 떠나있거나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율법학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도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막 7:5).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청결하고 좋

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깨끗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단순한 청결 복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손 씻는 행위를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손 씻을 물이 없으면 때로는 더러운 손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손 씻는 일을 하나님의 계명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두고 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막 7:9-13).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말씀이 있고, 정통성을 상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통성이 남아 있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두 성취됨으로써 구약의 시대에는 적용되었지만 신약의 시대와 오늘날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전통 속에 담긴 정통을 찾아서 의미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습니까. 구약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면 불효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전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통을 십계명 말씀

앞에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약 십계명의 전통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정통을 잃어버린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 받고, 로마에 압송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동족에게 배척받고, 이유 없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되고, 거짓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등장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재판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 번씩이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관리들이 세 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에 눈이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고한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였는데, 로마당국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공정정대하게 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사도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보면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리를 감옥에 투옥한 것을 사과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에베소에서 서기장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통입니다. 그 뜻을 전하는 이들을 정통을 떠난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두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가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로마당국에 넘겨져서 호송당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예언을 듣고도 그 길은 피할 길이 아니라 가야할 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고통을 받을 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렵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율법으로부터 생겨난 전통, 정통을 상실한 죽은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그들을 피해버리면, 그들은 전통에 빠져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20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지면서 전통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이야기들을 해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고 있었습니 다. 사도 바울이 흠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고, 모세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 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전파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있어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모세의 원수처럼 행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13면에 계속〉

“여행으로도 전도 할 수 있다”

남양주B공동체 순맛춤전도집회 ‘등잔 밑 여행’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맛춤전도집회의 달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B공동체’는 교회 밖으로 떠나는 순맛춤전도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5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여섯 가정을 초청해 강원도 철원으로 ‘등잔 밑 여행’을 떠났다. 이웃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 일대의 비경, 근대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보면서 복음을 전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했다. 남양주B공동체 순맛춤전도집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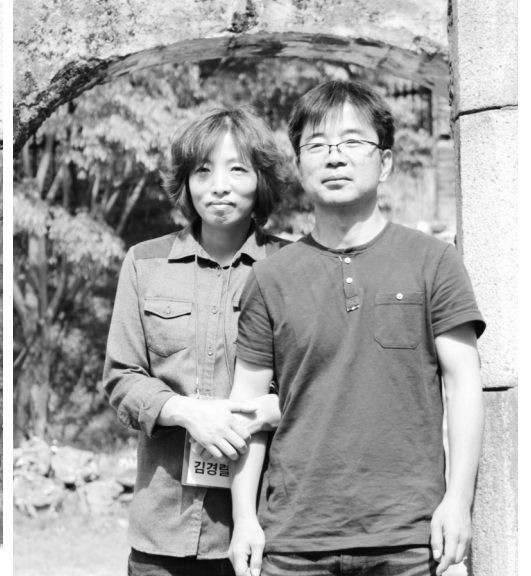
지난 5일 이른 오전 남양주 평내동. 전세버스 3대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B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등잔 밑 여행’을 가는 날이다. 그 길에 기자도 동행했다. 여행을 앞둔 이들의 표정이 한껏 들떠 있었다. 아이들은 빨리 가자고 아우성이었다. 안광국 목사의 기도로 순맛춤전도집회 등잔 밑 여행이 시작됐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B공동체가 실시한 등잔 밑 여행은 올해가 두 번째이다. 지난해 등잔 밑 여행은 남양주B공동체 야유회였는데 그때 몇 가정을 초청해 함께 갔었다. 초대받은 이웃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집에서 순모임 하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과 함께 온 성도가 있었는데, 등잔 밑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같이 순 모임에 참석할 정도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안광국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초청된 이웃들과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가



▲일행들이 문화해설사 임찬웅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철원제일교회터에서 김경렬, 정현옥 부부.

까워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웃들이 더욱 편안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효과가 있다”고 등잔 밑 여행의 유익을 설명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성도들의 극진한 섬김을 받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등잔 밑 여행은 탁월한 맛춤전도집회 방법이다.

등잔 밑 여행에서 예수 만난 김경렬 씨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리는 직탕 폭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려 할 것 없이 물수제비 실력을 뽐냈다.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물수제비 뜨는 법’ 특강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말을 한 마디라도 놓

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가 알려주는 물수제비 특강을 들었다.

김경렬(47세)씨도 아들 예웅이와 물수제비 대결이 한창이었다. 그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승수 성도의 초청으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등잔 밑 여행에 참석했다. 지난해 등잔 밑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흔쾌히 또 오게 됐다. 그는 지난해 등잔 밑 여행에 참석하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내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핏박 아닌 핏박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등잔 밑 여행을 했는데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인들과 많이 달랐어요. 배타적이지 않았고 참 선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선해지나?’,

‘왜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 요.”

그는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읽었는데 어렵듯이 답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매주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승수 성도와 성경에 대해 나눈다고 한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철원제일교회 터를 둘러보던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어때 깊은 영성이 느껴져?”

“그럼 느껴지지. 여보는 성경공부 더 해야겠다(웃음).”

지난해 등잔 밑 여행을 통해 그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올해 여행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여행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등잔 밑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최고!



김효식 씨
(서울시 서대문구)

예전부터 남양주 온누리교회 권정욱 집사님이 집들이 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이번 등잔 밑 여행을 통해 집사님의 집들이도 하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행도 하는 은혜를 누렸다. 사실 등잔 밑 여행에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교회행사다 보니 아무래도 야외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다.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생경한 분위기에서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이질적인 편견을 갖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기우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다는 것

외에는 특이함이 없었다.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더욱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것 같다.

강원도 철원은 ‘전방’과 ‘지뢰’가 떠오르는 지역이라 지금껏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다. 자연 풍경만 감상하기에는 미미할 수도 있었을텐데, 문화해설사 임찬웅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와 유래를 어찌나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지 정말 신나는 여행이었다. 아내가 노후에 문화해설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잔소리한 것만 빼면 이번 등잔 밑 여행은 정말 최고였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여행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분들과 함께 여행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편견과 거부감 없애는



권정욱 성도
(남양주 온누리교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혼자 흥분하고 좌절하는 일이 허다하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이번 등잔 밑 여행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 가정을 초청했다. 평소에도 이 후배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생각

이 들었다. 이번 등잔 밑 여행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때와 장소 같았다.

후배 가정이 내 초청에 응해주었지만 ‘예수쟁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니 당연히 예수 믿으라는 독촉과 압박을 할 것이니 참고 감수하자’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 후배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예수 믿으라고 독촉하거나 압박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 후배 가정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후배 가정이나 다른 가정을 또 초청하고 싶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편견과 거부감을 없애는 자리로서 말이다.

교회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저출산대책포럼 발족 ... “국가와 교회의 미래 달렸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우리나라도 저런 시대가 있었다. 1960년대 출산제한 정책을 나타내는 표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 현상과 북에서 월남한 인구가 급증하자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1960년 6명이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0년 2.8명으로 20년 동안 반 토막이 났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손꼽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뒤인 205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현재 약 5천 백만 명)까지 줄어든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가 지난해 4월 ‘저출산대책포럼’을 발족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교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양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제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엄청난 위기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로 들어섰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한명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꺼번에 은퇴하고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돼 있다. 인구절벽 현상은 생애주기상 소비의 정점을 찍는 47~48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가 확연하게 줄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교회에서 주일학교 차세대들과 청년들을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음을 이어 갈 다음 세대가 없어질 심각한 위기

앞에서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독려하면 될 것 아니냐 식의 접근으로는 실마리조차 찾기 힘들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 오죽하면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라는 말까지 등장 했을까. 저출산을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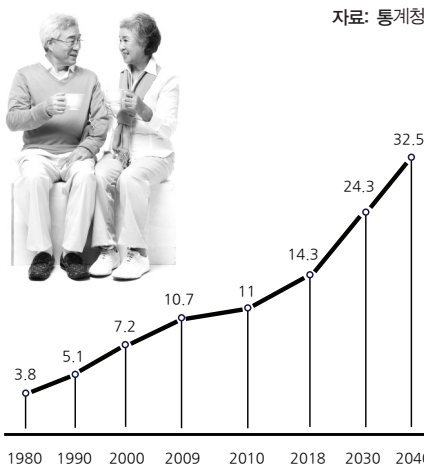
첫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 때까지 약 2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이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또한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때가 없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가 지금도 보도되고 있다.

둘째, 결혼해도 살 집이 없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에,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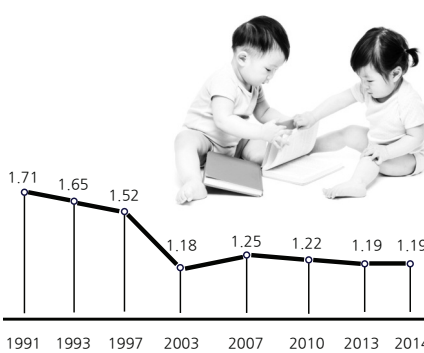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연도별 출산율 추이(단위: %)

자료: 통계청



거보다 물질이 풍족해졌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우리나라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동안 150조원이나 쏟아 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1.21명에서 1.19명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국가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에 대해 고건 장로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종교는 교회가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 1:28)고 하셨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온누리교회 저출산대책포럼 발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는 ‘저출산대책포럼’을 발족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가정이 바르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비전을 품고, 출산율을 높이고, 소비경제 선순환 체계를 복원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교회만의 차별화된 해결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아름다운 부부관계 회복과 올바른 자녀양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둘째, 결혼에서 출산, 양육까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든든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셋째, 교회가 할 수 있는 다각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저출산대책포럼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건립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결혼예비학교, 차세대 등 유관사역팀과 기술적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교회와 뜻을 함께하는 기업과 미디어그룹과도 연합해 범국가적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장이 열릴 것이다. 온누리교회 저출산대책포럼은 임항재 목사가 담당하고, 송종환 장로가 담당 장로, 전진국 집사가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기고

저출산 문제와 온누리교회의 역할



김선애 장로
(저출산대책포럼 자문위원)

표한 상기 내용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비상대책을 세우며 저출산 대책에 기하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동안

100조를 투자하면서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향 곡선으로 치닫기에 이르렀다.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은퇴 할 때까지 사회에 주는 경제적 효과는 13억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인구가 30년마다 반씩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걸쳐 각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고 어떤 영역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학생 수가 감소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게 된다. 나로서는 가정사역을 하고 있기에 이 현상을 더욱 외면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일을 생각만하면 안타까

운 마음이 들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지원정책과 함께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그 부모를 본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사역본부에서는 저출산대책포럼을 발족했다. 앞으로 결혼예비학교나 신혼부부학교를 통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델을 사회 전반에 보여주려 한다.

또한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가르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회 근처에 짓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방안이 온누리교회에서는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일수록 단결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이 위기인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마음을 합쳐 극복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운동의 바람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바란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이 무엇일까.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 심영순 권사(용산공동체)를 만나면 꼭 묻고 싶었다. 그녀는 1980년대부터 옥수동에서 요리강습을 했다. ‘향신즙 선생’, ‘옥수동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재벌가 며느리와 손녀, 대통령 며느리, 연예인 등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요리강습을 받았다. 2000년에는 그녀의 요리비법이 책으로 출간돼 큰 호응을 얻었고, 요리비법을 응용한 ‘향신장’, ‘향신즙’은 상품화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케이블방송 ‘한식대첩’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현재는 배우 박수진과 함께 케이블방송 ‘옥수동 수제자’에 출연하고 있다. 40여 년간 요리를 연구해 온 심영순 권사를 지난 10일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민트색 한복 저고리를 입은 심 권사는 입고 있는 한복처럼 곱디 고왔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 ‘심영순 권사’

“사람을 살리는 음식비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피난시절 어린아이였던 심영순 권사가 교회를 찾아갔다.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마음에 사탕과 노트, 필기도구 등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조금씩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과공부를 하게 됐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다.

“세상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은 억양, 생각,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 때 나도 예수님 믿어서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일이 생각만으로 되지 않았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다.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신앙이 조금씩 깊어졌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기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일이 재밌었고 감사했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섬겼다. 그러자 사람들도 그녀를 좋아했고 많이 따랐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유교사상이 강했던 어머니의 핍박이 심해졌다.

“아유, 말도 말아요. 그때 성경책이 아궁이에 던져지고 난리가 났었죠. 하루는 어머니께 교회에서 야회를 가는데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호통을 듣고 설거지물을 뒤집어썼어요. 집 밖에서 기다리던 교회아이들이 제가 설거지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만 가지 못했어요.”

심영순 권사가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따가운 시선과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비록 철저한 유교 사상을 가졌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이웃을 정말 잘 섬기시던 분이셨다. 세입자들에게도 정말 잘해줬다. 특히 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셨다. 심영순 권사와 언니들은 매일 동네를 뛰어다니며 음식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어머니가 그러셨기에 심 권사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어머니 말고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다. 결혼 후 삶이었다. 심성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



심영순 권사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다.

했지만 결혼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댁식구들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달랐기에 여러 번 상을 차려야 했고, 고된 시집살이를 겪었다. 고비 때마다 그녀에게 힘을 준 것은 찬양이었다.

“♪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휘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후렴구인 ‘큰 풍파는 잔잔해’라는 가사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가족들의 종교도 각양각색이었다. 제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다.

“친척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일단 상만 형식적으로 차려놓는 것이었죠.”

그녀가 상만 차리자고 생각한 이유는 그것 자체로 위로받는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음식도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 제사상은 온 가족을 모이게 하려는 도구에 불과했다. 조금씩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상을 차리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지금은 40여 명 되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온 가족이 모여 찬양을 부를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녀, 손주, 사위, 남편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마음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영순 권사는 자녀들의 권유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라’는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네가 만든 양념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양념을 만들어라.”

이때 그녀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심 권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두부와 콩이 떠올랐다. 또 열두 가지 채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볶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음식이 구상되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떠오르는 대로 메모를 했다. 그 메모가 그녀가 개발한 양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40년 전 양념은 방부제, 향료 등 몸에 해로운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매일 동의보감을 찾아가며 인체에 좋은 음식에 대해 공부했다. 당시 그녀의 일상은 공부와 기도의 반

복이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만든 것이 바로 ‘향신즙’이다. 향신즙은 우리 몸에 좋은 무와 배, 생강 등을 갈아 농축시켜 만든 양념이다. 그 다음으로는 ‘향신유’를 만들었다. 기름이 몸에 들어가면 음식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매일 기도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아침을 넣고 끓이면 좋겠다”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고추, 생강, 마늘, 파, 잣잎 등 채소와 기름을 반반 넣고 끓여서 향신유를 만들었다. 그 다음은 간장이었다. 당시 간장은 색소 덩어리였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간장 ‘향신장’을 만들었다.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여서 몸에 좋은 간장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양념장이 20여 가지나 된다. 모두 사람을 살리는 양념이다.

한번은 동아일보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개발한 양념 만드는 방법을 책으로 내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요리강습 받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극구 반대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다. 고민하다 하용조 목사를 찾았다. 그런데 그 날 하용조 목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 때 우연히 김사무엘 목사와 김영숙 사모가 있는 것을 보고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김사무엘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권사님, 웅답쌔에 맛있는 물이 고여 그대로 놔두면 썩지만 계속 퍼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면 새 물이 솟아납니다.”

심 권사는 그 말을 듣고 책을 내기로 했다. 보통 요리책은 3만부가 팔리면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그녀의 책은 출판한 지 3일 만에 1만5천부가 팔렸고 그 이후로 총 10만부 이상이 팔렸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 권사는 한식 세계화와 밥상의 회복을 비전으로 품고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한식을 건강식품으로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이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밥상의 회복이 곧 가정의 회복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식탁 교제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식을 차리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그녀의 넷째 딸이자 식품개발 회사 ‘NAVE S&F, 담미’ 장윤정 대표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죠.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3

연기자에서 사역자로 ‘이지형 집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새로운 비전이자 꿈”

이지형 안수집사는 온누리교회 뮤지컬찬양팀에서 11년 동안이나 활동했다. 1991년 KBS 14기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올해 26년 차 배우다. 한동안 TV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그를 지난 3월 17일 개봉한 영화 ‘일사각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재조명한 영화다. 배우 이지형 집사는 이 영화의 주연배우다. 배우가 아닌 사역자의 마음으로 출연했다. 지난 7일 그를 만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일사각오’는 이지형 집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아들 이지형 집사는 주기철 목사역을, 아버지 배우 이대로(77세)는 남강 이승훈 선생 역을 맡았다. 이지형 집사의 아버지인 배우 이대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가정에서 홀로 믿음생활을 해 오던 이지형 집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지형 집사는 어릴 적부터 연기가 꿈이었다.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KBS 공채 14기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 아버지가 연기자 대선배이자 동료가 되었다. 아버지에게도 아들과 같은 영화에 출연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인 배우 이대로는 이번 영화 출연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주기철 목사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에 출연한 것 자체만으로도 뜻 깊다고 했다.

이지형 집사는 주기철 목사의 삶과 신앙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매주 금요일이면 무학산 자락에 있는 십자바위에 올라가 “신사참배는 죄악”이라고 눈

물로 외치며 통곡했던 주기철 목사처럼 이지형 집사도 매일 기도하며 연기에 집중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무학산 자락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청계산 자락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영화에 담아냈다. 부자의 애끓는 노력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이 땅에서 다시 만난 것 같은 감동을 선물받을 수 있었다.

이지형 집사는 7살에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를 다닌 이후 대학부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1991년 KBS 공채 14기 탤런트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 세상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1997년에 온누리교회 새신자월린예배에서 스킷 드라마 연기자로 출연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 그는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2003년 1월, 박성희 목사가 온누리교회 뮤지컬찬양팀을 초청해 합류하게 됐다. 2003년 부활절에는 이지형 집사가 20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했다. 그 연극을 주일 3부 예배에서 탤런트 정태우가 ‘태우의 고백’이라는 주제

로 선보였다. 이지형 집사는 4부 예배에서 ‘지형의 고백’이라고 제목만 바뀌서 연기했다. ‘지형의 고백’은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야기였다.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음악이 흐르고 무용수가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춤을 추었다. 이지형 집사는 자신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사를 읊조렸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라는걸~”

그의 찬양은 진심이였다. 지난날 연기한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회개했다. 사실 무대 뒤편의 삶이 밝지 못했다. 교회에서는 찬양, 연기, 연출을 도맡았지만 세상에서는 돈을 쫓고 있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요를 불렀어요. 제가 무슨 가수라 백작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2005년 1월 내적치유학교의 정희성 간사(현, 목사)가 DTS(예수제자훈련)를 제안했다.

그는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스위스 로잔에서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의 배우에서 하나님의 배우로 변화된 것이다.

제 2의 인생을 꿈꾸다

그는 지금 NCMN(Nations Changer Movement&Network)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다.

“어느 날 앞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연기를 안 해도 좋으니까 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2012년 6월 한 리더십 세미나에서 홍성건 목사(NCMN 대표)와 김미진 간사(NCMN 학교장)를 만났다. 이지형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NCMN 액팅리더 간사, KID 왕의 재정학교 강사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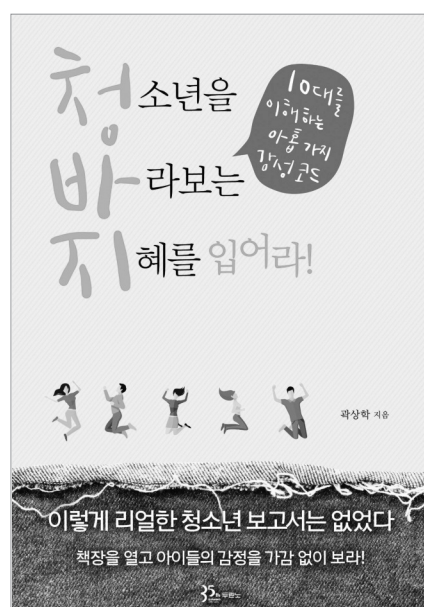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께 이젠 ‘하라 하신 일만 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영화 ‘일사각오’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것이 이지형 집사가 영화 일사각오에 출연하게 된 이유다.

“제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연기를 하거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현장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기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를 읽고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저자가 그동안의 삶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책을 집필한다기에 기대를 했다. 탈고의 시간과 이후에 진행되는 편집과 디자인까지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렇게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나왔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는 제목을 요약한 〈청바지〉라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평일에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주말에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의 특징과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도 10년 동안 어린이사역을 했다.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처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는 자녀, 주중에는 어린이사역, 주말에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생활하면서 외부강의까지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필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소년들과 보내고 있는 저자는 청소년에 대해 두말할 것 없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너무 과감

한 표현이나, 솔직한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삶이 진짜 그렇다. 학부모들은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표현들은 좋아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 청소년 시기가 되면 솔직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편견들이 산산조각 난다. 어느새 청소년들의 표현법이 눈에 들어온다. 그동안 거북하게 여겨졌던 청소년들의 언어가 어렸을 적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마 12:33)’는 말씀처럼, 나무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을 알기 위한 그들만의 감성코드 9가지를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을 ‘힘써 알기’ 위한 화(anger), 욕(disgrace), 성(sex)을, 청소년들과 ‘함께 울기’ 위한 꼴(appearance), 따(bully), 피(the precious blood), 청소년들에게 ‘보여주

기’ 위한 꿈(vision), 땀(passion), 썸(mentor)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와 교회에서 수업과 상담을 통해 경험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담았고, 저자의 실제 경험담까지 버무려 청소년들의 삶을 맛깔나게 이야기 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의 〈농화원〉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알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청소년들을 진짜 모습들이 보인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 통일 세대, 부흥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바란다.



석승호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특별대담

교회에 차세대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 내느냐의 문제”

부모, 교회, 성인들이 차세대와 청년 크리스천 재생산해내야 차세대와 청년 눈높이 맞춘 ‘차세대, 청년중심의 목회’ 제안

올해 장로수련회 주제가 ‘차세대와 대청’이다. 온누리교회 장로들과 차세대 관련 리더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세대와 청년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장로수련회를 앞두고 차세대와 대학청년부 목회자와 멘토들을 만나 차세대와 청년문제에 무엇인지 물었다. 박현규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 이하 박),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이하 김), 심희돈 장로(대학청년부 대표장로, 이하 심),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이하 노), 박대호 장로(서빙고 품방 담당, 이하 호)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줬다.

—한국교회에 차세대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 : “말씀하신대로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4년 캠퍼스 복음화율을 비교해봤더니 20대가 23%에서 18%로, 30대가 23%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캠퍼스 복음화율은 더 낮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한국교회 상당수가 대학청년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 : “5만8천개(통합)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약 8천개 정도입니다. 통합측은 그나마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60%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에 차세대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주일학교 학생 수가 34.2% 줄었고, 같은 시기 아동학령 인구가 32.4% 줄었습니다. 차세대가 줄어든 숫자와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든 수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먼저 내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이미지의 실추(병죄 연루 크리스천, 대형교회 문제 등), 둘째 진리의 배타성으로 인해 교회가 문화적·세상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셋째 신앙에 대한 회의, 넷째 캠퍼스에서 의 개인전도가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다원주의 세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주장하면 악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화론 교육도 문제입니다. 저는 진화론 교육이 차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청년 시절과 이 시대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심 : “누구에게나 청년 시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달라진 것은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을 잘 받아들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일부 교회에서는 바로 그 교육과 훈련이 조금 약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공부를 하지 않아도 목사가 인수를 주변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점입니다. 교리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성도가 나중에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맡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과 싸웠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존 재자체를 몰랐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은 가족애를 바탕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장이었 고,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배움의 준비공 동체였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 가며 실천하는 자세를 배우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에서 올바르게 배운 것을 사회로 끌고 나가 환원하겠다는 꿈 이 있었습니다. 이타적인 꿈을 꿔왔습니다. 그러 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으니, 커서 뭐가 될 거냐는 질문에 어떤 어린 이가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더 군요. 정말 깜짝 놀랐고, 절망했습니다. 이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쉽게 살려는 가치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가 족화,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중심점이 없어진 탓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 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차세대와 청년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 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리사천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박 : “요즘 세대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바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과 싸웠던 시대를 살았습 니다. 과거에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존 재자체를 몰랐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은 가족애를 바탕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장이었 고,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배움의 준비공 동체였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 가며 실천하는 자세를 배우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에서 올바르게 배운 것을 사회로 끌고 나가 환원하겠다는 꿈 이 있었습니다. 이타적인 꿈을 꿔왔습니다. 그러 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으니, 커서 뭐가 될 거냐는 질문에 어떤 어린 이가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더 군요. 정말 깜짝 놀랐고, 절망했습니다. 이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쉽게 살려는 가치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가 족화,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중심점이 없어진 탓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 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차세대와 청년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 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른들이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 을 보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 :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가 관건 입니다. 신앙이 다음세대로 얼마만큼 넘어가 는지를 살펴봤더니 10가정 중에 7가정만 다 음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신앙을 아이들 에게 얼마나 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 닌니다. 부모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 : “차세대와 청년들을 가리켜 ‘현존하는 미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대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대로 신앙적인 회의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해서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고나서는 자신의 판단으로 다니는데 점점 확신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 입니다. 이 시대는 전통적 권위가 무너진 시대 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움직이 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을 기회로 이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제자훈련을 통해 차세대와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 게 해야 합니다. 요즘 ‘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들은 진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 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 험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추된 기독교 이미지 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누리교 회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

차세대와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큰 영향을 받 습니다.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 의 세계관과 신앙을 결정 짓습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을 단순한 일꾼이 아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바 라보고 키워야 합니다.”

“어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를 따로 떼어 서 보기보다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인 식해야 합니다.”

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섬 기는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같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청년들과 문화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일 시킬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변화되 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통해 이뤄내는 사역을 했 다면 이제는 청년을 키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 고 봅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을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바라보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 인세대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소 통하고 기도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세대와 청년 들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인공동체가 청년들 과 차세대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야 합 니다.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교회의 일꾼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른들 이 살기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노 : “맞습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은 독립적, 독자적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부모,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차세대 4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에 가장 영



박현규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



심희돈 장로(대학청년부 대표장로)



박대호 장로(서빙고 품방 담당)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보기 보다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자녀가 대학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 손자들이 차세대에 소속되 어 있으니 우리 가족의 문제가 맞습니다. 차세 대와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세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장 로님들이 가장 먼저 차세대와 청년문제에 공 감하고, 선도해줘야 성인공동체도 따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 “교회와 가정세대의 역할은 궁극적으 로는 크리스천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믿음 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 성인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건강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에서 대학부, 대학부에서 청년부,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 로 바뀌는 과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 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 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작은 교회들은 이러 한 문제들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세대와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크리스 천의 재생산을 위해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김 : “현재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단 과 사이버는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갈망 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 스도를 바로 보여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여준다면 차세대와 청년세대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N포세대’라는 부 정적인 말은 하나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는 이것을 영적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 려고 ‘N포세대’라는 말로 얽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 다.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올바른 정 체성을 심어주고,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 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고,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심 : “놀이도 별로 없고 이성친구를 만날 기 회도 별로 없는 시절에 교회가 그 욕구충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청년들의 욕 구충족을 해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 그들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가 세상과 차별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들이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 들 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박 :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 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어른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 른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어른들 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 : 세대 간 단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 회조차 조직처럼 되어서 모두 나눠져 있어 아 름다운 대화가 되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있지 않 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가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차세대 학생 수 가 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 습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차세대에 쏠려있 다는 것입니다. 차세대와 청년 중심의 목회 방 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양육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와 청년 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이 필요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신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 고, 삶이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시 간, 재정, 환경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박 : “교회 패러다임 자체가 차세대 중심으 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차세대 문제는 미래 문 제가 아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입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늦 습니다.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 양육, 조직, 격려, 응원원 차세대와 청년들 중 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장로 님과 권사님들께 차세대와 청년들 예배현장 에 한번이라도 가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사 들과 교역자들이 얼마나 맘 흘러서 힘쓰고 있 는지, 현장을 들여다보고 장로수련회에 참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에 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세대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김 : “현재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단 과 사이버는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갈망 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 스도를 바로 보여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여준다면 차세대와 청년세대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N포세대’라는 부 정적인 말은 하나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는 이것을 영적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 려고 ‘N포세대’라는 말로 얽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 다.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올바른 정 체성을 심어주고,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 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고, 복음만이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심 : “놀이도 별로 없고 이성친구를 만날 기 회도 별로 없는 시절에 교회가 그 욕구충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청년들의 욕 구충족을 해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 그들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가 세상과 차별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들이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 들 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박 :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 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어른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 른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어른들 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 : 세대 간 단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 회조차 조직처럼 되어서 모두 나눠져 있어 아 름다운 대화가 되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있지 않 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가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차세대 학생 수 가 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 습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차세대에 쏠려있 다는 것입니다. 차세대와 청년 중심의 목회 방 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양육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와 청년 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이 필요

/ 진행=김남원 편집부장, 정리=정현주 기자

여호수아공동체 부모초청 전도집회 60명 결신

윤형주 장로의 행복콘서트, 청년 2천 명, 부모 169명 참석

여호수아공동체가 개최한 부모초청 전도집회에서 믿지 않는 부모 60명이 결신했다. 지난 주일(8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 부모초청 전도집회 ‘윤형주 장로의 행복콘서트’에는 청년 2천 명과 믿지 않는 부모 169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장로는 “오늘은 세상의 우산을 접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의 비를 맞기를 바란다”는 말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찬양, 가요, 통기타 연주까지 선보인 윤 장로의 공연에 부모들이 옛 추억에 잠겼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덧붙였다.

“저는 1975년 12월,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갔습니다. 수감을 차고 영하 17도가 넘는 차가운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도 만나보시겠습니까?”



윤형주 장로의 행복콘서트에 청년들과 부모들이 함께 했다.

특히 윤 장로는 장인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전도집회 무대에 올라 큰 감동을 줬다. 슬픔을 감추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살아야 고작 100년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늘나라로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과 친구 되어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합시다!”

어머니와 이모를 초청한 김지영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엄마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탈북민 위한 맞춤형 전도집회 개최

5월 22일 오후 2시 양재 JDS홀

하나공동체가 탈북민 맞춤형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5월 22일(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막 오른다. 이번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전도집회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주제로 열린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지붕을 뚫고 중풍환자를 달아 내린 네 명의 친구(마 2:1-5)처럼 탈북민들을 전도하자는 의미다.

이번 탈북민 맞춤형 전도집회에서는

하나공동체에 한번이라도 왔었던 탈북민들과 탈북청소년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탈북민 지역에 관심 있는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다. 이날 맞춤형 전도집회에서는 탈북민 출신 바이올리스트 정요한 집사(전 김정일 악장단장)가 공연과 간증을 할 예정이다.

문의: 010-7130-3469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장학회에 장학금 기부 이어져

서빙고 권사회와 양재 권사회는 지난달 각각 200만원을 온누리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에 앞서 2015년 신임 장로들도 장로장립을 기념하며 400만원을 금년 초에 기부했다. 온누리장학회는 이 기부금을 금년 2학기에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 열려

온누리교회 소속 의사 200여 명 한 자리에

크리스천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과 소명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가 치러졌다. 지난 7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온누리 의사의 밤 행사는 SDG(Soli Deo Gloria)의 앙상을 연주, 전병곤 성가사와 소프라노 신델라의 특선, 김재원 KBS 아나운서의 토크쇼,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구한말

조선 땅에 온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었다”면서 “의사들이 간절한 마음, 헌신과 열정,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훈 성도(내과 전문의)는 “온누리교회 소속 의사들을 의료선교사로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다”고 했고, 김병순 장로(CMN 대표장로)는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모든 의사들이 의료선교팀 CMN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정현주 기자

박종호 장로 회복 소망하는 찬양집회 ‘프렌즈’

5월 16일 오후 7시30분 양재 사랑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회복을 소망하는 찬양집회 ‘프렌즈’가 5월 16일 오후 7시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프렌즈는 암 투병 중인 가스펠 음악계의 거장 박종호 장로의 수술비 모금과 회복

을 위해 기도하는 찬양집회이다.

그동안 박종호 장로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찬양집회를 인도해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대표곡이다. 박 장로는 그간 찬양집회 수익금과 사례비를 선교단체에 기부

해왔다. 그런 그가 본인의 수술비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성도들이 이번 찬양집회를 기획했다. 찬양사역자 고형원, 메리제인, 송정미, 아침, 전용대, 최덕신, 최인혁, 하덕규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9250-307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더멋진세상 해외 단기선교사 모집

5월 27일까지 서류 접수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NGO 활동을 통한 선교와 국제 개발 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는 성도 중에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분야 경력자나 영어 및 불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파견국가는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아시아 중앙아시아 네덜란드이다.

해외 단기선교사로 선발되면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1~2년간 파견되어 현지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5월 27일까지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모집공고와 지원서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oim@abetterworld.or.kr

문의: 02-2271-224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예배학교 2기 6월 12일 개강

서빙고 예배학교 2기가 6월 12일 개강한다. 7월 10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근린공원에 위치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예배와 찬양, 예배순서의 의미, 예배와 삶, 결단과 헌신(예배의 적용) 등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김영진 목사(예배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6월 1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서달석 팀장

010-7142-9167

WHY 무슬림 2기 5월 21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양재 두란노홀

2000선교본부 이슬람선교학교에서 주관하는 ‘WHY 무슬림 2기’가 개강한다.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WHY 무슬림 2기에서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인가’(이모세 선교사), ‘성경적 관점에

서 이슬람’(박경남 선교사),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노규석 목사), ‘이슬람 팽창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이현수 선교사), ‘유럽, 아시아, 한국의 이슬람’(김아영 교수),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김홍주 목사)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5월 22일 / 시간: 주일 오후 3:30 / 장소: 드림홀 / 대상: 4월1일~5월7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유수경 장경자 홍미영	심수영 유민경 유수경 장경자 조만재 주수옥	강남C 김선정 김지애 박현식 신광수 안성아 양 진 주재련	강남D 김순아 김윤진 박준형 신지현 전수지	분당A 김지환 이승훈	서초A 김이진 김흥률 배정룡 서정선 정예택	서초B 김명희 김태욱 박진아 서초C 양성훈	서초D Abirra Kim 김이진 김희경 정훈영	김양희 유승하 이정희 임희수 정경희	황미성	유지원 이동현 이세영
강남B 박승희 송영혜				산본안산 오상훈 정영민			송파 김미정	안양평촌 김태형	푸른누리 이유승	



오카야마 기 · 도 · 제 · 목

- 5월16일(월)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 5월17일(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은혜 있기를
- 5월18일(수) 리더십포럼, 가스펠나이트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리지기를
- 5월19일(목)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강사진, 게스트들에게 기쁨 부어주시기를
- 5월20일(금)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러브소나타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 양재 사랑부 교사 간증



/ 김은영 교사(양재 사랑부)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

작년에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내게 양재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떨겠냐고 권유하셨다. 그 권유를 받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방문한 사랑부 홈페이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문구를 발견했다. 내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부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양재 사랑부 예배에 찾아갔다.

양재 사랑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발달장애인과 교사들의 공동체다. 사랑부 예배는 뜨겁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순수한 예배에 압도되어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실시된 사랑부 여름캠프를 섬김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여름캠프 이후 사랑부 아이들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부에 소속된 대학청년부도 가르치게 되었다. 사랑부 아이들과 보낸 1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 보이는 장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결핍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24).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시 14: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인해 결코 낙심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부 지체들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요즘 매주 주일 아침 사랑부 아이들과 ‘살림’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 아이들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나누는 인사이기도 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아이들도 믿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

사랑부 예배가 변함없이 향기로운 번제가 되도록 중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 이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고 지혜다. 복음이 사랑부 아이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강동 차세대 교사 간증



/ 이경순 교사(강동 온누리교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내가 중고등학생 시절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겼던 기억이 난다. 두란노서원에서 기자로 일하던 분이 우리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 주셨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그 기사를 따라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집회에도 참석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다.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등록했고, 중등부 교사로 자원해서 섬겼다. 당시 김원태 목사님의 열정과 패기에 도전을 받아 중등부 교사에 이어 사랑부 교사로 섬기게 됐다.

내 삶이 사역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다. 이는 언니를 따라 예수전도단 DTS(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참여하게 됐고, 믿음이 날로 성장했다. DTS를 하면서 울산에 있는 한 교회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쁘게 섬겼다. 울산 지역 아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빠르게 흡수했다. DTS를 마치고 예수전도단 선교 후원관리부서에서 섬기게 됐다. 백석대학교에서 신학공부도 했다. 신학대학원 1학년 겨울방학 때 주일학교를 섬겨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기쁨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2000년 첫 주에 그 교회로 향했다. 주일학

교 아이들과 뛰놀며 정말 기쁘게 섬겼다.

하나님은 내게 사역의 문도 열어주셨다. 하나님에 있는 풍성한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했다. 300명 남짓한 교인들 중에서 차세대만 50명이 넘는 교회였다. 내 아이가 4살이 된 시점에 사역보다 가정에 충실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동 온누리교회 꿈땅(초등부) 코치로 섬기고 있다.

내가 지속적으로 차세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다. 어릴 적 만났던 두란노서원의 기자처럼 내가 중학생 시절 보조교사를 했던 그 마음처럼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나는 사역자가 아닌, 부모이자 교사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가정안에서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교사이자 부모로서 이 말을 하고 싶다.

“가정교육의 시작은 말씀에서 비롯된다.”

■ 남양주 주찬양사역팀 아웃리치



/ 조용민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주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

내가 청년시절에는 성가대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성가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더 이상 미혼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찬양사역팀이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아웃리치가 군선교인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장병들이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대하고 나면 다시 교회를 등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우리가 사역한 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9사단 7095포병대대 백마 신평교회였다. 남양주 주찬양 성가대는 어떻게 하면 1박2일 동안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박윤현 성가대 담당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목 상태 악화로 급하게 창조과학을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을 섭외했다. 1년 동안 스케줄이 차 있어 시간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직원의 설명이 있었지만 김 교수님은 전화 한 통에 흔쾌히 달려와 주셨다.

또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도 와서 사역해 준 청년부 위신팀과 고등부 댄스팀에게도 감사하다. 그들이 선보인 공연에 군 장병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다. 단체 피구, 족구, 간식 나눔, 조별 신앙상담 등을 통해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주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다. 열심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건강을 많이 회복한 박윤현 목사님의 말씀은 군 장병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번 군선교 아웃리치를 위해 많은 성가대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장병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성가대원들의 헌신으로 7095부대에 꼭 필요하다는 15kg용량 세탁기를 4대나 설치해줬고, 풍성한 간식도 준비해 장병들과 나눌 수 있었다. 휴일에도 나와 K9 자주포의 실제 기동 모습을 보여 줄 정도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준 7095부대 간부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장병들이 내년에 꼭 와달라고 한 부탁을 꼭 들어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일대일 동반자 과정 수료 간증



/ 박마리아 자매(부천 드림플러스)

양육자님은 천사이자 선물

나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때 고민이 있었다. ‘혹시 엄마와 아내는 집사님이 연결되면 어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일대일 양육자에 대한 기도를 계속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염려와 생각을 아시는 듯 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양육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첫 만남부터 알 수 있었다.

첫 만남부터 지난해 우리 가정에 있었던 고난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주를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양육자와의 만남은 늘 설렘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 설교, 책, 만남 등의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더 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다. 말씀, 기도, 사랑에 기초해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나의 경험과 마음, 여러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양육자님이 참 고마웠다. 존중과 배려로 끝까지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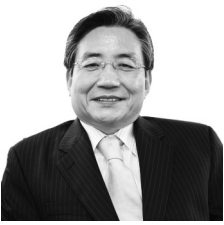
나눠주는 양육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나 양육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게 하시고, 삶과 가정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고백하게 하셨다.

처음 가졌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쉽게 나눌 수 없었던 부분들을 나눌 수 있었다. 나보다 먼저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양육자님의 도움이 컸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놀라우시고, 살아서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다. 나의 양육자님 뿐 아니라 모든 양육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이자 선물이라는 감동을 느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안전한 교회는 나부터 시작



조청구 장로
(서빙고 안전관리위원장)

교회의 안전은 가정의 안전이며, 세상에서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매일 250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매년 9고통을 겪고,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2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듀폰사는 200년 전부터 안전규칙을 명문화 했고, 100년 전에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수칙 책자를 배포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공표했다. 지금도 듀폰에서는 회의 전에 5분 정도 안전에 대한 대화를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다. 국내기업들은 어떨까. 안전의 근본부터 점검하고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세이프 무브’를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목표로 삼은 곳도 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길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현장사고 방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천사의 날개를 버스 오른쪽에 달았다. 차문이 열릴 때마다 “어린이가 내려요, 스톱(stop)”이라고 쓰인 노란색 날개 모양의 경고판이 펼쳐진다. 뒤에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리히터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3만 8천명이 30분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고열에도 3시간 동안 지탱할 수 있도록

내화 설계를 했다. 사고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맞춰 안전교육과 훈련도 실시한다.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3번 이상 적발되면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관에서는 매월 긴급 소방훈련과 비상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센터에서는 통합방제시스템 운영 및 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 활동과 교육, 대피훈련, 응급환자 처치, 안전관련 신고 등을 받고 있다. 매주 주일 아침 6시30분부터 의료봉사자를 세우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산소호흡기, 청진기, 혈압측정기, 체온계, 환자용 들것, 침상, 구급약품 등을 비치했다. 2인의 안전위원이 비상근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행사 및 교회직원과 목회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매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아웃리치 및 야외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11월에 전 교인 비상 대피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대피요령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부착하고 있다. 또한 안전 생활화와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안전을 실천하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부터 내가 먼저 실천하는 안전한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



강숙경 권사
(OCC 공동체)

남편은 한 국해비타트(Habitat)를 섬기고 있고 나는 그 일을 뒤에서 기도 로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은 ‘어려운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부부는 젊었을 때 늘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다. 그렇기에 게으른 것이 용납이 안됐다.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석 달 전, 손녀가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손녀를 보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실히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해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됐다. 올해 64세인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여름과 겨울에 미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가족들과 지내고 온다. 이번 겨울에는 손녀의 돌을 맞아 찾아갔다. 우리 손녀는 돌이 되었지만 혼자 일어나서 지 못했다. 우리는 그냥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간호사였던 장모가 아이를 보살피다가 눈치를 채고 검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손녀가 발달장애라는 검사결과를 온 가족이 함께 듣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 주는 것밖에 해 줄 것이 없었다.

“나는 손녀가 매우 자랑스롭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 아이를 함께 키울 것이다.”

둘째 며느리는 외국인인데 이러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와 하나가 됐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는 나에게 손녀가 처음으로 방긋 웃으면서 작은 손을 연신 흔들었다. 처음으로 손을 흔들며 빠이빠이를 해준 손녀가 내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것이다. 손녀가 우리 집의 기쁨이자 자랑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다. 손녀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우리 가족에만 머물지 않고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길 바란다. 한 국해비타트를 섬기면서 유독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본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들은 다른 어려움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손녀를 통해 한국해비타트를 더욱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는 장애아동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아픔을 깊이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신앙에세이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하나님



정장철 목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햇살이 쏟아지는 모래사장, 시원하고 활기찬 파도, 곧게 뻗은 수평선... 바다는 비단이런 눈부신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 비릿한 바람이나 코끝에 전해지는 봄의 기운, 불을 얼얼하게 만드는 추위, 모닥불의 온기도 떠오르게 한다. 바다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은 사계절처럼 평안, 설렘, 만족뿐만 아니라 애절하고 비통한 마음까지도 포함한다.

산타모니카 인근에는 해변이 많다. 엄청나게 긴 모래사장이 있고, 파도가 부딪치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바위들도 많다. 그런데 이곳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멋진 경관을 보여주는 장

소만은 아니다. 장로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 여기 바닷가는 우리에게 그리 아름다운 곳만은 아닙니다. 초창기에 이민을 온 한국 사람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문화적 차이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쳐서 힘들고 외로울 때, LA 땅 가장 서쪽인 이곳 바닷가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태평양 너머 보이지 않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는 슬픔을 달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바닷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와 달랐다.

성경에도 저마다의 바다를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 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었다. 모세

에게 바다는 하나님의 돕는 방패이며 창으로 기억된다.

요나에게 바다는 니느웨 성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계획이 무너진 장소였다. 애국 애족의 결의가 꺾여버린 곳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기도 하다. 요나가 구약에서 이방인 전도자였다면, 신약의 이방인 전도자 바울도 바다를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전도여행을 시작할 무렵, 동지였던 젊은 마가가 중도포기를 선언하고 떠나버린 항구 구브로와 힘써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혀버렸던 드로아까지 바울에게 바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경험으로 바다를 기억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 계셨고, 바다 위에 계셨고, 바닷가에 계셨다. 성자 하나님도 그곳에 계

셨다. 광풍이 배를 삼킬 듯 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다 깨어나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거친 파도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을 도우려고 급히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방향을 잃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아침 식탁을 차려주셨다.

우리 삶에는 바다 속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때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끝없이 표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시기가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소망을 잃고 과거의 바닷가로 돌아가려는 체념의 때가 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두려운 상황에서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고, 체념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정통과 전통

과장된 것이고,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폄하했습니까. 율법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전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장차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정통성이 없는 전통을 지키느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똬스 속이 뿌리내린 전통을 무시함으로 관계가 깨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고전 9:19-22).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카멜레온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꺼림칙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내가 먹으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먹으면 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감사하지”하며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합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을 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전에는 나 실인 서원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정결의식을 못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당신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당신을 보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통을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와 과장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방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과장, 추측, 편견, 잘못된 전통이 사도 바울을 고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 무조건 옳은 것이 되어 정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전통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전통이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차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전통이 중요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러한 모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편안한 만족감에 빠지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조차도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무너뜨렸던 그 시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권위에 관심이 없고, 오랜 교회 전통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직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통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통으로 전통을 개혁하고 변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정호진 집사
(KIBI 부대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거대한 분리장벽이 가로질러 있다. 필자가 예루살렘에 살던 198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장벽이 없었고, 양측의 왕래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저항이 심화되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사이에 분리장벽을 만들었다. 분리장벽이 만들어지고 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동이 통제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팔레스타인의 항쟁이 거세졌다. “왜 우리 팔레스타인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느냐?”며 항의했다. 과연,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

AD 70년 예루살렘성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AD 135년 로마의 통치에 저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에 패배하자,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다.

AD 135년 이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난 2천년 역사 동안 그 땅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마 지배 시대부터 비잔틴, 아랍, 십자군, 이집트의 맘루크, 오스만터키 그리고 영국의 지배 시대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1880년대 시온주의(이스라엘 독립 운동)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땅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십자군 시대에는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1844년에는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5,510명이었는데 그 중 7,120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슬렘인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1897년 세계유대기구가 조직되고 시온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유대인 대량 이민 집단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공동체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영국의 외무부장관 벨포어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선언이 있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자 아랍계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간에 주권 다툼이 거세졌다.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건립을 허용하지는 않건을 UN에 상정했고, 1947년 11월 29일 UN에서 이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아랍

연합국(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쫓아버리겠다는 선포와 함께 1948년 5월 14일 그 땅에서 영국군이 철수하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UN이 승인한 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슬람원리주의자들과 과격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반대로 평화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족주의와 종교적 대립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아랍 기독교인들 사이에 양국민의 화합을 위한 평화적 무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거처하는 타민족이나 나그네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할 때 그들을 동족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 삶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그 운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아랍기독교인들을 통해 일고 있다.

14 온누리신문

Acts 29 **게시판**

2016년 5월 15일(주일) | 제1099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턴 몽골어예배 13:00 프레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목요일 10시30분 / 누리홀 /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더멋진세상 본부사역자 모집
분야: 국제개발관련 사업담당
자격: 영어가능자, NGO경력자 우대
기간: 5월 27일까지 서류접수 마감
지원: ojm@abetterworld.or.kr
서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된 지원
서식식을 이용
문의: 오정민(010-9114-2310)

내용골 융합선교 적정기술 아웃리치
팀원 모집
일시: 8월 11일(목)~15일(월)
장소: 중국 내용골 후오하우터
대상: 30대 이상 모든 남녀(30명)
회비: 10,000원(교재, 간식비 포함)
접수: ischoolionnuri.org
문의: 02-3215-3436

은빛날개세미나(은퇴 이후의 삶)
일시: 6월3일-6월24일 매주 금
10:30-12:30
접수: 6월 2일까지
장소: 홍보관(서빙고)
대상: 30대 이상 모든 남녀(30명)
회비: 10,000원(교재, 간식비 포함)
접수: ischoolionnuri.org
문의: 02-3215-3436

새가족 만남의 잔치 봉사자 모집
시간: 홀수달 마지막 주일 오후 3시~8시
내용: 탁아방, 셋팅
문의: 이영희 팀장(010-3786-3103)

영어부 예배 음향 교사 모집
일시: 주일 오전 8~10시
장소:서빙고 신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정인경 코치(010-4534-4312)

일대일 과목별특강
일시: 매주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자격: 모든 양육자 *등록없이 오펜강의
문의: 오성탁 집사(010-3004-3311)

자녀의 성경적 세계관을 위한 부모교실
일시: 5월 19일-6월 9일 매주 목19:30~21:30
장소: 서빙고 신관1층 acts29홀
회비: 없음(아이스콜로 등록)
문의: 복인수 간사(02-3215-3533)

예수사랑부 보컬,울동 봉사자 모집
시간: 11시 20분
문의: 천양인도자(010-4201-311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재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30분 / 총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2000선교 프랑스어예배 선교세미나
일시: 5월 9일~30일(매주 월) 오후 7:30
양재 드림홀(지하2층)
담당: 제라르 티네베 목사(통역 있음)
문의: 김기정 총무(010-3912-9393)

창조신앙 교육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일정: 5월 26, 27, 28일 중 선택 가능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오후 2시~8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문의: 010-3869-7785

몽골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빈민게르촌
일시: 7월 27일~31일
모집: 의료인, 미용사, 봉사자
문의: 장성수 총무(010-6652-3596)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
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3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19:40 분당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를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람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주일 오후 7:3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오전 11:30 분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분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천

0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레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04호
-프레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주일국제예배
해문교(조선어)영어예배)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03호
몽골어예배 오후 1시 프레스페이스 3층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레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프레스페이스 6층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성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론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 ##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리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최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 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오를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 오세아니아
- 시드니
-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문화봉사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Taihei, Sumita-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hinaniwa Chuo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
Japan
- 야치요**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아마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900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lkyoku, kyoto japan

-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C
HCMC, Vietnam

-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다롄**
김대원 목사 86-415-313-6811
 중국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SHI KAIFAP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대련
송수목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3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 -Qu
 Chunyuan-Li Chunhaijierxian (526lu
 Pao台山 zhongdianzhan)
심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漕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3lou 388shi
징주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丰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fengchuan lu 213hao onnuri.
청도
최승규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27号楼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an
 Laoshanqu Xianggangdongtoulou69
 Kaixuanshanzhuana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답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 | | | |
|------------------|--------------|-----|-----|
| ▶ 캐피트 | 담당 독사 | | |
| 박영준 | 이안국 | 박형준 | 신기섭 |
| 바대영 | 양준 | 김중민 | 서경남 |
| 최원준 | 도유찬 | | |
| ▶ 부서사(전임) | | | |
| 강미향 | 강승윤 | 강일영 | 강일학 |
| 권오영 | 권용강 | 김성주 | 김관주 |
| 김도균 | 김도균 | 김성호 | 김성욱 |
| 김성원 | 김소리 | 김승수 | 김영창 |
| 김성훈 | 김병배 | 김영진 | 김영창 |
| 김요성 | 김유식 | 김재석 | 김정숙 |
| 김정순 | 김현철 | 김중호 | 김찬호 |
| 박대용 | 김경실 | 김종우 | 노규석 |
| 노지형 | 노희대 | 림문용 | 마이클 |
| 문영재 | 바대원 | 박성은 | 박성민 |
| 박석재 | 박석재 | 박승재 | 박승재 |
| 박윤현 | 박철웅 | 석석호 | 성종용 |
| 손소라 | 송영동 | 송영동 | 신동식 |
| 신사채 | 양성민 | 양재경 | 여성민 |
| 오민 | 오은규 | 유용상 | 원유정 |
| 유우영 | 유영준 | 윤정석 | 윤길경 |
| 윤석원 | 이귀선 | 이귀선 | 이귀선 |
| 이길탁 | 이동훈 | 이민욱 | 이시원 |
| 이성진 | 이서진 | 이성진 | 이유재 |
| 이원진 | 이재원 | 이재정 | 이정환 |
| 이준호 | 이친우 | 이혜영 | 임용순 |
| 임재현 | 임재현 | 전진식 | 전재표 |
| 전홍철 | 전현규 | 정상호 | 정성훈 |
| 정영근 | 정재륜 | 정성호 | 정현석 |
| 정경관 | 조동욱 | 조보훈 | 조보훈 |
| 조준근 | 최성민 | 최오영 | 지대근 |
| 차재목 | 최진식 | 최석성 | 최영민 |
| 최용준 | 최희중 | 채기석 | 한화수 |
| 황기찬 | 하원희 | 황재범 | 황종연 |

- | | | | |
|-----------------|-------------------|------|------|
| ◆전도사(전임) | | | |
| 김용민 | 김재홍 | 김중호 | 박사무열 |
| 박승훈 | 배대성 | 변대섭 | 유승현 |
| 이길현 | 이종현 | 정현호 | 한영철 |
| ◆경배와찬양 | | | |
| 하스태브 | 이기복 | 목회자 | |
| ◆협력목사 | | | |
| 김도일 | 이기복 | | |
| ◆부목사(파트) | | | |
| 김승현 | 곽상하 | 김종영 | 김장성 |
| 한도환 | 한승환 | 마우루스 | 서광원 |
| 백영익 | 송 숙 | 신장빈 | 신우현 |
| 안근영 | 안희진 | 위대호 | 유용국 |
| 임인아 | 채미리 | 최봉호 | 원영배 |
| 황능준 | Enoch Kwaku Hanoh | | |
| ◆전도사(파트) | | | |
| 강병현 | 강영진 | 고재현 | 고재현 |
| 고창현 | 권호정 | 기호진 | 김혜영 |
| 김기태 | 김대운 | 김덕기 | 김강경 |
| 김민서 | 김민수 | 김민수 | 김선미 |
| 김선재 | 김세현 | 김소리 | 김승관 |
| 김영신 | 김요한 | 김용석 | 김은영 |
| 김은하 | 김진석 | 김지나 | 김진아 |
| 김진하 | 김찬숙 | 김혜경 | 김희연 |
| 나정원 | 나지혜 | 남화평 | 문정원 |
| 민정윤 | 박광규 | 박기호 | 박상명 |
| 박영민 | 박옥자 | 박이호 | 박옥성 |
| 박지예 | 박지훈 | 방세희 | 배순양 |
| 백도훈 | 서복호 | 서 철 | 서수민 |
| 서영희 | 송지은 | 신경훈 | 신대균 |
| 신종진 | 신현진 | 신현진 | 안사무열 |
| 안용근 | 양종현 | 양은주 | 양진범 |
| 오라 | 오운재 | 유 경 | 유승덕 |
| 유진아 | 유진희 | 윤상복 | 윤수진 |
| 윤정노 | 윤준석 | 윤지연 | 윤현규 |
| 윤영림 | 이경선 | 이대익 | 이대익 |
| 이미령 | 이승윤 | 이동기 | 이우람 |
| 이은경A | 이승은 | 이은희 | 이영관 |
| 이재석 | 이정노 | 이종민 | 이준인 |
| 이지원 | 이지인 | 이정우 | 이정원 |
| 이봉주 | 이하나 | 이현대 | 이현석 |
| 이경련 | 임요하 | 임정남 | 임지현 |
| 임요진 | 장동원 | 장유미 | 장재원 |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이은일 | 이인용 | 이상로 |
| 이재규 | 이재준 | 이재호 |
| 이제환 | 이종우 | 이태균 |
| 이대훈 | 이해원 | 이한규 |
| 이영진 | 임병승 | 이희주 |
| 이종길 | 임성열 | 임창현 |
| 이광필 | 임오식 | 임장환 |
| 정환수 | 정성준 | 전근구 |
| 정정호 | 정영배 | 정대성 |
| 정성호 | 정경민 | 정보권 |
| 정성우 | 정영석 | 정영은 |
| 정경식 | 정학연 | 정진호 |
| 조대식 | 조성환 | 조희원 |
| 조준호 | 조도선 | 조성환 |
| 조찬우 | 최재상 | 최치운 |
| 최기철 | 최서민 | 최득완 |
| 최관길 | 최현재 | 최정무 |
| 최하늘 | 한갑수 | 한광식 |
| 최파천 | 한강인 | 한유성 |
| 한정익 | 한형식 | 함응식 |
| 한필남 | 허광수 | 허복표 |
| 홍성남 | 홍시태 | 홍영우 |
| 홍중일 | 황병환 | 황영국 |
| 홍철일 | | |
| ▲명예장료 | 추모순 | 양원명 |
| 이몽만 | 이화상 | 임대지 |
| 정장룡 | 정광택 | 정광우 |
| 최창자 | 채수정 | 정성삼 |
| ▲협동장료 | 박문도 | 김정훈 |
| 강성도 | 김관수 | 김재민 |
| 고대준 | 변영대 | 류대민 |
| 박지인 | 안호송 | 우상근 |
| 유재성 | 윤용구 | 전태경 |
| 정지호 | 최태화 | 최현의 |
| 정지훈 | 합지언 | 황재호 |
| ▲성가사 | 김계영 | 김건주 |
| 김세일 | 김정숙 | 김정환 |
| 김지현 | 김정희 | 김영남 |

- | | | | |
|-------------------|------|--------|------|
| 정규 | 송정 | 서동 | 신수 |
| 인주 | 화현 | 훈호 | 정오 |
| 선유 | 유은 | 이근 | 미선 |
| 우선에 | 이진 | 아정 | 예비 |
| 이민호 | 임성 | 조미라 | 조정 |
| 이수연 | 공은 | 채미원 | 조경열 |
| 전병환 | 최영 | 최지선 | 최재영 |
| 최희용 | 홍흥식 | | |
| ◆반주자 | | | |
| 김기우 | 김보승 | 김성일 | 김준상 |
| 김기우 | 김태호 | 김영애 | 김준하 |
| 김지웅 | 김지석 | 김민하 | 김진숙 |
| 노성호 | 박순 | 속혜연 | 이혜진 |
| 노성은 | 박 후 | 성인양 | 이정현 |
| 윤영진 | 유재욱 | 장영연 | 윤정현 |
| 유영진 | 이강민 | 장나래 | 이예진 |
| 최해준 | 최모미 | 장하미 | 최영훈 |
| 배원식 | 강영대 | 황대준 | 황보훈 |
| 해의 은누리교회 ◆ | | | |
| ◆OMA담당목사 | | | |
| 박재영 | 이정엽 | 이중재 | |
| ◆담임목사 | | | |
| 강부호 | 강은 수 | 권혁진 | 금경연 |
| 김대진 | 김영철 | 김철민 | 김철호 |
| 김대진 | 김영철 | 이종현 | 김창희 |
| 문봉주 | 박만규 | 박시원 | 서재범 |
| 서 현 | 유형복 | 이훈 | 이성균 |
| 이영선 | 이한규 | | 정장철 |
| 최승구 | 최태명 | | |
| ◆부목사 | | | |
| 김일학 | 관희정 | 권혁진 | 금동섭 |
| 김미정 | 곽성익 | 김보라 | 김순옥 |
| 박시연 | 김태환 | 문성일 | 박정원 |
| 박수현 | 박바람 | 박진영 | 박택근 |
| 박찬민 | 백운우 | 서성광 | 심상현 |
| 이소영 | 유동우 | 유정훈 | 이경호 |
| 이은하 | 이세원 | 이신식 | 이요표 |
| 이은상 | 이지훈 | 이종실 | 이한성 |
| 전성환 | 전효록 | 정영환 | 정희성 |
| 조수정 | 조희진 | 전진국 | 최영진 |
| 최정무 | 허 민 | 함영진 | 홍성훈 |
| 최재바 | | Lee Jo | Song |

- | | | | |
|--------------|--------------|----------|----------------|
| ◆전도사 | | | |
| 강성근 | 강찬호 | 강창환 | 加藤 伸 |
| 김대준 | 김 산 | 김우진 | 김정환 |
| 김성현 | 김지현 | 김우진 | 김정환 |
| 김지은 | 김지현 | 김우진 | 김정환 |
| 김현경 | 구혜선 | 노경호 | 鄭 晙 |
| 미카사 | 문하나 | 민성진 | 박우민 |
| 박우리 | 박지은 | 박지은 | 박태훈 |
| 박향진 | 박현일 | 박지은 | 박지은 |
| 배유희 | 백일영 | 배 유 | 서민준 |
| 서재욱 | 백성정 | 손미경 | 손준우 |
| 송준현 | 정기원 | 정기원 | 정기원 |
| 이민택 | 연경숙 | 윤경숙 | 이복희 |
| 이상수 | 이수연 | 이재경 | 이지나 |
| 이미영 | 이진희 | 이현우 | 윤성민 |
| 장세용 | 지자영 | 지자영 | 전희봉 |
| 정동윤 | 정동윤 | 정바라 | 정선진 |
| 정은숙 | 정성교 | 정호석 | 조 두 |
| 조하경 | 최성미 | 최정호 | 최정수 |
| 조혜아 | 하보라 | 하예찬 | 최정수 |
| 한소은 | 홍기람 | 황혜선 | Christine Shin |
| David Kim | David Ko | Jean Lee | Joe Lee |
| Jean Kim | Tommy Nishio | | |
| ◆장로 | | | |
| 김경덕 | 김태환 | 백 학 | 손진식 |
| 신동수 | 이덕환 | 이상덕 | 이민영 |
| 이문호 | 장우진 | 정길안 | 조복환 |
| 조성민 | 함소희 | 허규구 | |
| ◆영예장로 | | | |
| 김용석 | | | |
| ◆협동장로 | | | |
| 강광일 | 강봉립 | 김경문 | 김동민 |
| 김영환 | 정재우 | 정호석 | 최승호 |
| 유한도 | 이제원 | 임현식 | 최태영 |
| 김종수 | | | |
| ◆성가사 | | | |
| 고양숙 | 김성수 | 김용재 | 남병호 |
| 노용진 | 도승희 | 박민규 | 김영호 |
| 박서영 | 송지현 | 송지현 | 임영민 |
| 이후필 | 염혜숙 | 유영경 | 이정민 |
| 이정우 | 이종현 | 정우영 | 전경환 |
| 조화경 | 조종섭 | 최영애 | 정경환 |
| 황여반 | 황진주 | | 홍현정 |

소천

- 5/6(금) 마포 조재환 성도 부친상 고 조현옥
5/7(토) 과천의왕 양상용 집사 모친상 고 이영숙 성도
5/8(주일) 서초B 윤현주 장로 빙부상 고 김봉명 집사
5/10(화) 용산 류태준 집사 부친상 고 류경성
5/11(수) 관악금천 김강진 형제 부친상 고 김용범
5/12(목) 강남A 김양숙 성도 부군상 고 오병택 성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한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방음기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 군포시청소년심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원 모집**
 검정고시(수·화·국·영·리·사·과) 및 악기(통·가·타) 후원 모집
 문의: 임재구 팀장(031-399-7997)
-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31-334-9090)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가계목욕 및 안내
 시간: 가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사·화요일)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앤딩다이어리 4기 참여 모집**
 대상: 만60세 이상 어르신
 기간: 5월 19일~7월 14일(매주 목) 14:00~16:00
 내용: 웰다잉교육 & 자서전제작
 문의: 안선영 사회복지사(794-6100)
- 청파노인복지센터 실버요가 강사 모집**
 내용: 아르스동과 함께하는 실버요가 자원봉사
 활동시간: 매주 월, 수 15시~16시
 활동혜택: 명절선물, 나들이, VMS봉사시간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 반동코이노니아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희 사회복지사(985-3609)

재정

- 심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의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이란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 우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일정: 02-7997-297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 10:00~오후 5:00, 토·일: 오전 10:30~오후 3:00
현장상담: 개인, 부부, 가족, 아동을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및 놀이상담 위기에 대한 제공
U&A 학습 진로탐색사
특수상담 세부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변별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문학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국 상담: 수요일 오후
- 양재
- 우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하우스 자동문 안쪽)
상담일정: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커피를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주말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4:00 서빙고 본당**
이준근, 김홍숙(하늘소망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이홍섭(온누리교회)
박태영, 김현숙(신일교회 집사, 집사의 딸
박지영(온누리교회)
- 5월 20일 금요일 오후 17:00 양재 사랑들**
심재철, 박희영(이태원교회 권사의 아들 심형석
(crossroads presbyterian fellowship church)
임동욱, 박순영(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의 딸
임정은(온누리교회)
-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들**
최현석, 윤금희(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최혁준(온누리교회)
이경무, 김경희(남포교회 집사, 집사의 딸
이현아(남포교회)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들**
한재민, 김영래(지구촌교회)의 아들
한규성(오션시티교회)
홍수환, 오석(예배교회 장모, 권사의 딸
홍윤정(온누리교회)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개크맨 표인봉

방송인 이지희

탈북민 공감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감시다

탈북민의 고민을 나누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정은아 아나운서

2016년 6월 7일 (화) | 오전 11시 30분 첫방송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